



1 겸재 정선이 그린 '내연삼용추'. 위가 연산폭포, 중간 두 가닥 물줄기가 관음폭포, 아래가 참룡폭포다. 2 제1 상생폭포 3 제6 관음폭포와 암벽



내연산12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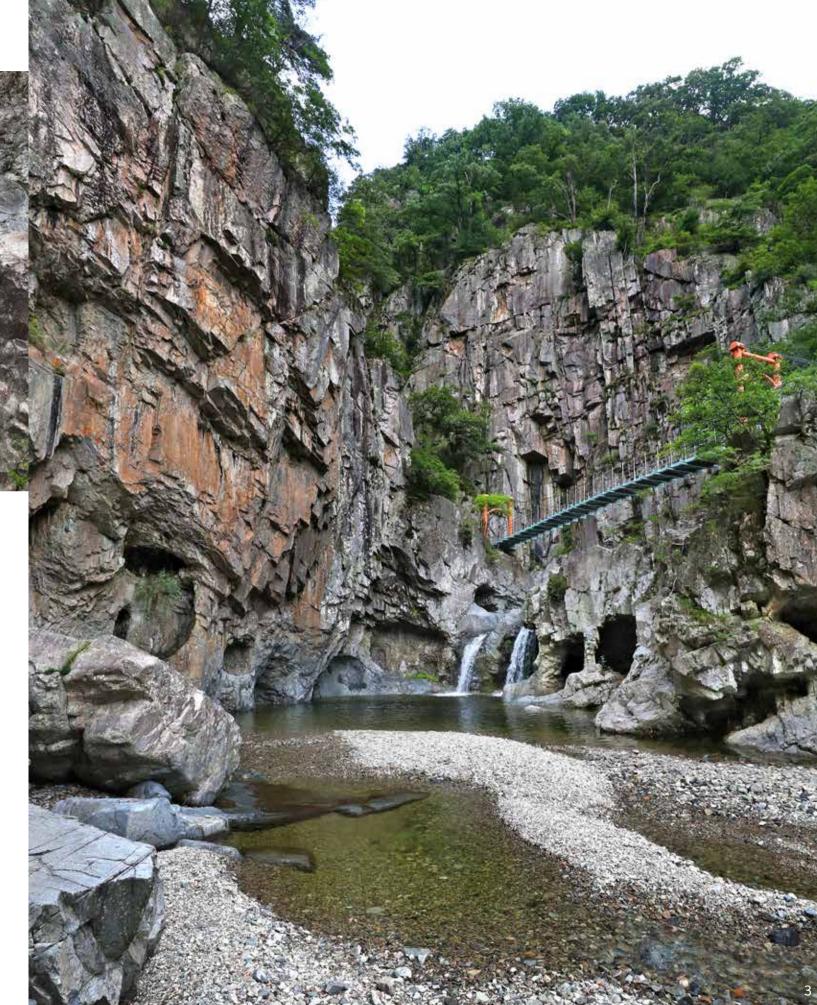
조선시대 유학자 정시한(1625~1707)은 '산중일기'에서 내연산 폭포에 대해 "기이한 경치이며 금강산에도 없다"라고 했다. 1733년 청하 현감으로 부임해 2년 동안 재임했던 겸재 정선은 '내연삼용추' 등 내연산 폭포를 소재로 한 그림 4점을 남겼다. 겸재는 진경산수화의 걸작 '금 강전도'를 청하에서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하는 내연산 계곡의 옛 이름이다. 진경산수화풍이 완성된 곳이 내연산인 셈이다.

내연산 계곡은 신생대 화산지형이 빚어낸 협곡이다. 화산재가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형성했다. 절벽은 '깎아지르다'라는 표현이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직벽의 거대한 바위였다. 작은 것은 수십m, 큰 것은 $100\sim300m$ 높이에 이르지 않을m 싶다.

선일대(仙逸臺), 비하대(飛下臺), 학소대(鶴巢臺) 등이 특히 이름난 암벽이다. 암벽 밑에는 맑은 물이 세차게 흐르고,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와 못, 소(沼), 담(潭) 등 푸르고 깊은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다. 급류에 침식된 암벽 하단부에는 여기저기 동굴이 패여 있다. 제6 관음폭포부근에는 얼핏 봐도 3~4개의 깊은 동굴이 만들어져 있었다. 동굴화가 진행 중인 곳은 더 많았다.

흔치 않은 협곡인 내연산은 그윽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국립이나 도립이 아니고, 군립 공원에 지나지 않아서일까. 행정구역상 옛 영일 군에 속했던 내연산은 옛 영일 군이 포항시에 통합되기 전에 군립 공원으로 지정됐다. 산악인 중에는 '설 악보다 내연'이라는 예찬가도 적지 않다. 내연산은 경북 8경으로 꼽히며 경북 3경으로 분류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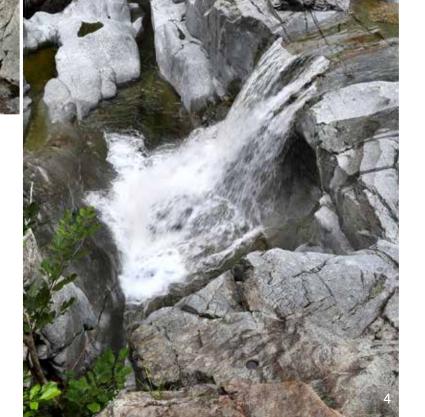
Augus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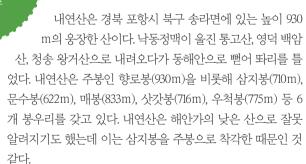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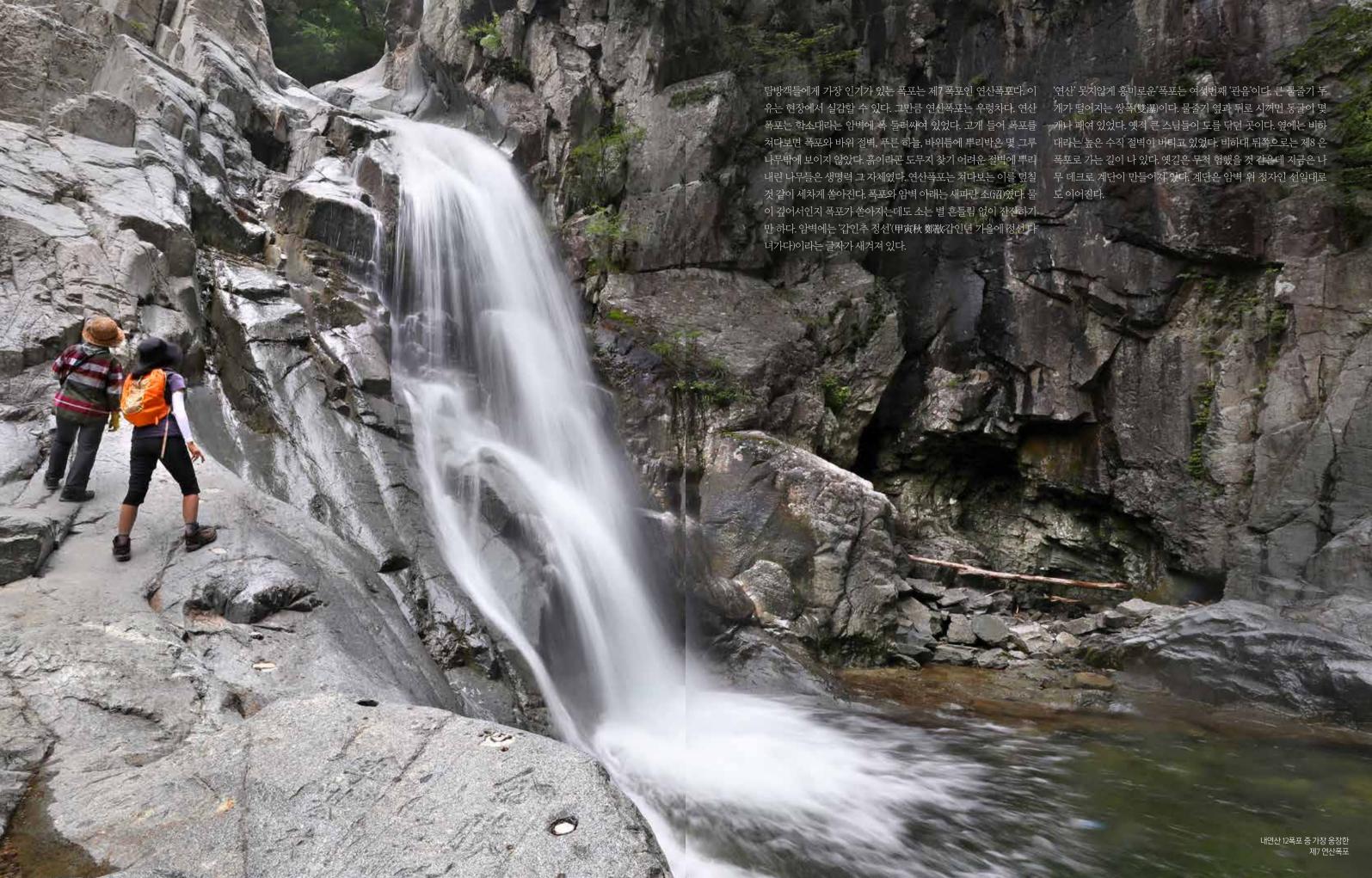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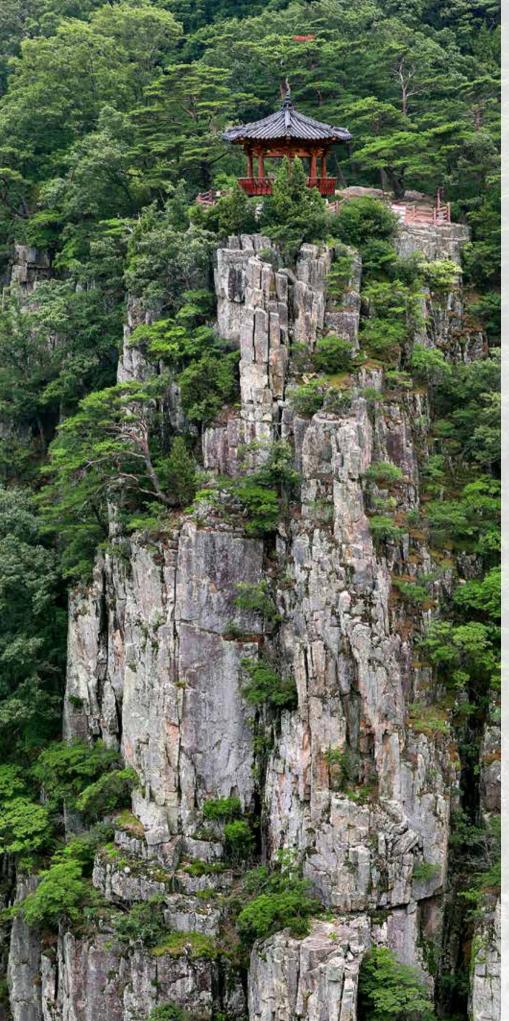




우리는 내연산을 이틀 연속 찾았고 몇 번인가 계곡을 오르내렸다. 계곡은 시시때때로 느낌이 사뭇 달랐다. 여름이어서인지 아침 7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곡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햇볕은 쨍쨍했고, 계곡물은 우렁찼다. 우르르 쾅쾅~. 바위가 크고 못이 깊은 곳에서는 흘러가는 물소리가 대포 소리를 방불케 했다. 흐린 날 오후 계곡은 심연에 잠긴 듯 장중했다. 시시각각 색다른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산과 바다만이 아니었다. 계곡도 그랬다. 아마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자연이 마찬가지이리라.

내연산 계곡은 길이가 14km에 이른다. 높이 7~30m의 폭포가 12 개다. 계곡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제1 상생폭포, 제2 보현폭포, 제 3 삼보폭포, 제4 잠룡폭포, 제5 무픙폭포, 제6 관음폭포, 제7 연산 폭포, 제8 은폭포, 제9 복호1폭포, 제10 복호2폭포, 제11 실폭포, 제12 시명폭포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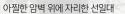




해발 298m 암봉에 설치된 선일대에서 내려다본 협곡은 아찔했다. 협곡 건너 맞은편 절벽 위에는 '소금강 전망대'가 설치돼 있다. 내연산은 작은 금강산이라 하여 소금강이라고도 불렸다. 선일대와 소금강 전망대에서는 '연산', '관음' 외에도 제4,제5 폭포인 '무풍'과 '잠룡'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바닥 철강재사이사이로 발밑 낭떠러지가 언뜻언뜻보이는 소금강 전망대에서는다리가 후들거리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한여름 무더위가 한방에 사라지는 곳이다.

내연산 계곡의 남다른 묘미는 낭떠 러지, 산기슭 등 높은 곳에서 내려 다보이는 협곡의 장관이다. 열두 폭 포까지 길은 몇 군데 빼놓고 잘 다 듬어져 있었다. 돌을 판판하게 깔았 고, 경사가 급하거나 길이 험한 곳 에는 나무 데크 길과 계단이 설치돼 있었다.

탐방객들은 대개 제7 연산폭포에서 하산한다. 계곡 입구인 보경사에서 2.7km가량 떨어진 연산폭포까지 걸 으면서 계곡의 참모습을 누렸다고 느낀 뒤 하산하는 것이다. 좀 더 열 성적인 관광객은 제8 은폭포까지 방문한다. 은폭포까지는 약 4km다. 우리는 내연산의 마력에 이끌리듯 복호 1, 2 폭포와 실폭포, 시명폭포 까지 12폭포의 탐방을 마쳤다. '복호' 란 그 옛날 호랑이들이 폭포 바위 위에 엎드려 쉬곤 했다는 데서 붙여 진 이름이다. '시명'에는 '처음' '시작' 의 뜻이 담겨 있다. 오래전에 화전 민들이 살았던 시명리가 근처에 있 다. 계곡 입구에서 시명리까지는 약 6.2km이다.







1연산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소금강 전망대 2 제11 실폭포 3 계곡 제일 위쪽에 자리한 제12 시명폭포

제11 폭포는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치 비단실처럼 가늘고 고와서 '실폭포'라고 불린다. 계곡 초입에서 5.4km 거리인 실폭포는 먼길을 온 탐방객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준다. 5단 폭포인 실폭포는 연웅장하면서도 우아했다. 물안개가 핀 것도 아닌데, 물줄기는 섬세하고 부드럽게 보인다. 강하면서 부드러운 물이란 이런 걸까. 복호 1과 시명 폭포는 길에서 계곡 쪽으로 100~150m가량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야 볼 수 있었다. 급경사를 오르락내리락하는게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첫 번째 폭포인 '상생'은 기대를 안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았다. 규모가 꽤 큰 쌍폭이다. 제2, 3, 4, 5 폭포인 '보현', '삼보', '잠룡', '무풍'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나 하나같이 남다른 개성을 갖고 있었다. 내연산 계곡엔 굳이 폭포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큰 바위에서 깊은 못으로 떨어지는 현란한 물줄기가 곳곳에 많았다. 한폭의 동양화를 떠올리는 심산유곡은 내연산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내연산의 매력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두가지 더 있다. 천년고찰 보경사와 드넓은 경북수목원이다.







1계곡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수로가 등산로를 따라 시원스레 흐른다. 2 보경사 3 보경사 반송

유서 깊은 보국사찰 보경사

입구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계곡의 맑은 물은 동해로 바 침략을 막고 삼국을 통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평왕 로 흘러가지 않고 보경사 옆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를 통해 이 오색구름에 덮인 내연산 아래 연못에 거울을 묻고 창건한 인근 농토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었다. 천수답이 대부분 절이 보경사다. 불국사 말사인 보경사는 고려, 조선을 거치면 이었던 옛적 계곡물은 농민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원이었을 서 원진국사 등 많은 고승이 중창을 거듭했다. 건물들이 다양 테다.

보경사에 들어서면 굵고 늠름한 금강송들이 밭을 이루고 있 1224년 건립한 원진국사비 등 국보가 3개 있으며 적광전, 5층 다. 속세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 같았다. 보경사의 석탑 등 문화재가 볼거리다. 도 지정 기념물인 수령 400년의 연기설화는 이 절이 보국사찰임을 말해준다. 신라 지명법사 탱자나무 2그루, 수령 300년 느티나무, 수령 200년 이상의 반 는 602년 중국 진나라에서 팔면보경을 갖고 귀국했다. 진평 송이 번잡하지 않은 보경사의 그윽함을 더한다.

내연산 계곡 탐방로는 보경사에서 시작된다. 보경사는 계곡 왕에게 '동해안 명산에 이 거울을 묻고 불당을 세우면 왜구의 한 시대 양식을 보여준다.





4 삼미담 5 숲속 갤러리 6 창포원 7 만발한 수국(경북수목원)

'숲속의 숲' 경북수목원

다. 수백 년 거목이 많은 게 다른 수목원과 차별화된 특징 서 맑은 날 동해와 호미곶을 볼 수 있다.

3천ha에 달하는 경북수목원은 내연산 남쪽 줄기, 해발 650 생태숲 탐방로는 등산로를 통해 내연산 계곡으로 연결된 m에 자리 잡은 고산수목원이다. 수목원 자체도 큰데, 3천 다. 수목원은 울창한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는 데다 동해 200ha가량의 도유림이 다시 수목원을 둘러싸고 있다. '숲 를 바라볼 수 있고 내연산 계곡으로 통해 등산객들에게 인 속의 숲'인 셈이다. 그만큼 숲이 넓고 생태가 잘 보존돼 있 기다. 수목원은 탐방로를 개방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식 물원, 희귀식물원, 고산식물원, 식약용식물원 등 24개 분원 이다. 내연산 6개 봉우리 중 매봉, 우척봉, 삿갓봉이 수목원 과 유아숲체험원, 생태체험관, 숲문화시설 등이 만들어져 경계 안에 있다. 해발 730m에 위치한 전망대인 영춘정에 있다. 국내외 수종, 경상북도 향토 고유 수종을 수집, 보존 하고 있으며 식물유전자원 연구를 한다. ♥





